

10월 4일(월) / 마 13-15

- ▶ 내용요약 :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어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등을 통해 천국에 대해 교훈하셨다. 14장에서는 헤롯을 비판했다가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심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다.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전통으로 인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공격을 받으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의지들과 행위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교훈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이들을 먹이셨다.
- ▶ 질문 :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 남은 조각은 몇 바구니였나? (14장)
- ▶ 생각하기 :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히시고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그래서 시편이 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시편 23편).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자.

10월 7일(목) / 마 22-24

- ▶ 내용요약 :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해 교훈하셨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은 적은 사실에 경계하셨다. 또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다. 한편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으면서 그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핍박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이후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있을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도 교훈하셨다. 그리고 그러한 징조들을 통해 인자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 ▶ 질문 :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무엇인가? (22장)
- ▶ 생각하기 :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깨어있는 우리가 되자. 이는 비를 피하기 위해 우산을 챙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10월 10일(일) / 막 4-6

- ▶ 내용요약 :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교훈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의미를 자세히 해석해 주셨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큰 광풍으로 인해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다.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

10월 5일(화) / 마 16-18

- ▶ 내용요약 :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이었다. 한편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하여 칭찬을 받았다. 이후 17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때 예수님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18장에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 예수님께 여쭙었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교훈하셨다.
- ▶ 질문 : 예수님께서는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는가? (18장)
- ▶ 생각하기 : 용서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용서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인 만족과 안정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용서의 용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발휘되기 때문이다.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매 순간 기억하자. 그리고 용서의 실천을 통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증명하도록 하자.

10월 8일(금) / 마 25-28

- ▶ 내용요약 :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 깨어 있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셨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외의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래서 더욱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2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 겔셋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날 밤 가롯 유다는 군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몰래 따라갔던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다. 27장에서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심문을 받으시고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2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울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 ▶ 질문 :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28장)
- ▶ 생각하기 :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버렸다. 결국 깨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흩어지거나 예수님을 부인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자.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약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 떼가 바다에서 몰사하였고,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간청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의 딸을 다시 살리셨다. 한편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도록 두 명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풍성하게 공급하셨다.

10월 6일(수) / 마 19-21

- ▶ 내용요약 :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라고 교훈하셨다. 이후 재물이 많은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그는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다. 한편 20장에서 예수님께서 교만한 마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에 대해 교훈하셨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맹인 두 사람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다. 21장에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이에 백성들은 '호산나(구하오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를 외치며 환영했다.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셨다.
-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20장)  
"인자가 온 것은 ( )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 )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 생각하기 : 어린아이를 용납하시고 안수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멀리하지 말자. 오히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10월 9일(토) / 막 1-3

- ▶ 내용요약 : 마가복음은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먼저 1장에는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 들린 사람과 나병환자를 고쳐주셨다.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지붕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이후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다. 3장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 파송하시기 위해서 열 두 제자들을 세우셨다.
- ▶ 질문 : 다음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2장)  
"건강한 자에게는 ( )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 )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 )을 부르러 왔노라"
- ▶ 생각하기 :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들을 세우셨다. 그렇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그분의 진정한 제자이자,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질문 :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은? (5장)
- ▶ 생각하기 :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 귀신을 쫓아내신 것, 병자를 고치신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바다 위를 걸으신 것 등)은 모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심지어 우리를 섬기기 위한 종으로 오셨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